

전당운영 900~1000명 필요...광주 기반 조직·인력 구성 절실

특별법 통과 됐지만...亞문화전당 개관 '산 넘어 산'

오는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가 5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문화전당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일 통과됐다. 그러나 전당의 원활한 운영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후속 조치는=우선 관련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조직·인력)와 기획재정부(예산)의 협의를 거쳐 전당 조직에 대한 자세한 밑그림을 완성해야 한다. 이후 문화관광체육부가 주도해 인력 충원을 거쳐 개관을 준비하는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문화전당 건립을 추진했으며 아시아문화개발원이 문화전당에 들어갈 콘텐츠 제작을 위탁받아 맡아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운영주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말 완공된 문화전당의 시설 관리 등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문화전당의 시설 관리와 운영 등을 총체적으로 맡게 될 정부 조직이 구성되는 것이다.

문화전당을 재출 내용(콘텐츠) 개발을 맡은 아시아문화개발원에 따르면 개발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전당의 운영주체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세부 조치를 위

행자부·기재부 협의 거쳐 공무원 수급 범위 등 결정

문화개발원 계약직 승계 속세 "지역문화인력 배려" 목소리

한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개발원은 정부의 후속 방침에 따라 전당 운영 조직인 '아시아문화원'으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새롭게 태어날 아시아문화원의 인력을 몇 명까지 국가 공무원 소속으로 할지 등 인력 수급 범위를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조직이 구성되는 데는 한 걸음 더 멀다.

현재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정규직 40명을 포함 207명이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전당을 운영하려면 정규직 423명을 포함해 900~10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인력 수급에 애로를 겪으면서 전당 콘텐츠 준비를 위한 프로젝트 인력을 모두 계약직으로 뽑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근무중인 아시아문화개발원 인력의 고용 승계 문제도 풀어야 할

큰 숙제다. 아시아문화개발원 측은 전당의 주요 5개월 감독과 연구 인력들이 모두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새로운 조직이 생기더라도 고용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 개발을 위한 450억원 등 전당 개관 예산으로 책정된 930억원도 개정안이 통과돼 큰 무리 없이 지원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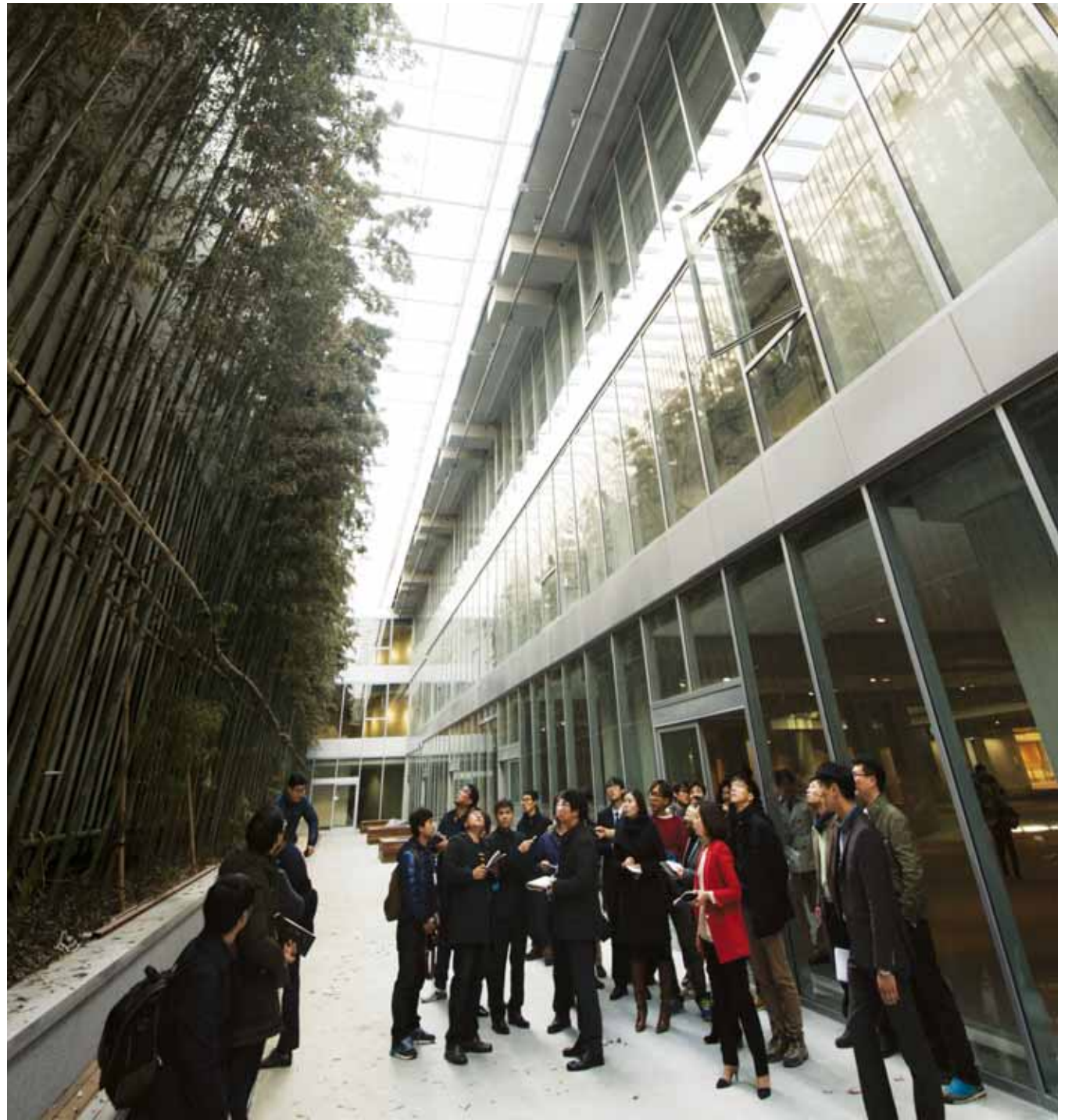
▷지역 문화인력 역량 강화=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채용 규모, 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로드맵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전남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문화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엄청난 일자리가 생겨나는 상황에서 '문화전당을 광주 기반으로 운영하겠다'는 애초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문화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한 데다 문화전당 건립 계획 이후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이 아직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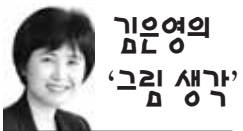
따라서 전당 운영 초기단계에서는 능력을 갖춘 경우 분야별로 지역 문화인력을 배려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이후 지역대학과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전당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단계적으로 키워 지역문화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문화전당 특별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지역 문화계 안팎에서는 400여명에 달하는 문화전당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아시아문화전당내 대나무 정원.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임향한 마음인 양, 달빛 고아한 매화 한폭



김영령의 '그림 생각' '그림 생각'

(105) 달을 기다리며

"달뜨면 오시겠다 말해 놓고서/달떠도 우리 임은 오시지 않네/아마도 우리 임 계시는 곳엔/산이 높아 저 달도 늦게 뜨나 봐" <능운 작 '달을 기다리며'>

며칠 전 친구에게 시집 선물을 받았다. 시낭송 모임도 자주 다니는 친구다. 시를 읽는 대신 '손자병법'이나 '십팔사략' 등을 접하고 있다는 나의 근황을 듣고 친구는 "강박했다"느니 "전쟁터 에라도 나가나"느니 하며 안쓰러워했다. 시집을 사거나 읽고 선물하기를 즐겨했던 나 자신이 시로부터 멀어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아마 겨울이였기 때문인 것 같다. 겨울은 아무래도 자연의 심술이나 매서운

이 있다. 감성도 움츠러들게 한다. 요 며칠 사이 중의공원에 피기 시작한 홍매를 만나고 나서야 좋아했던 시도, 시를 감상하고 싶은 마음도 되살아난다. 오늘 밤, 정월 대보름달 아래 은은하게 피어있을 홍매를 상상하니 마음에 담이두었던 시도 꺼내보고 싶고 그 풍경을 담았을 그림도 챙겨보게 된다.

조선 중기의 화가 어몽룡(1566~?)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월매도(月梅圖)'는 달빛 아래 단출한 형태의 매화를 운치 있게 묘사한 작품이다. 늙은 매화 동치에서 뻗어난 매화 가지의 고아한 꽃봉오리가 임을 향한 마음인 양 달빛에 젖어있는 듯하다. 달을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어서인지 작품 '월매도'는 이른 봄과 달밤의 애절한 서정이 정말로 잘 어우러져 그윽하게 마음을 비춘다.

매화그림으로는 조선 제1인자로 평가받으면서 황집중의 포도그림, 이경의 대나무그림과 함께 조선 중기 '문인화



어몽룡 작 '월매도'

의 삼절(三絶)로도 꼽혔던 어몽룡의 또 다른 '월매도' 한 점은 5만원 권 지폐에 등장한다. 매화가 핀 트락을 찾아 떠나 '탐매행(探梅行)'이 여의치 않은 봄날이거든, 5만원 권 지폐 속 목매도라도 자주 들여다보리라.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청와대 수석 3명 투입...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편

정부가 창조 경제의 '민·관 창구역할'을 해 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협의회 위원을 기존 8개 부처 장관과 8개 경제단체 장에서 4개 부처 장관과 3개 경제단체 장으로 줄이는 대신 청와대 비서실 산하 수석 비서관 3명을 추가하는 내용의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편되는 협의회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미래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

합회·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함께 청와대 미래전략·경제·교육문화수석이 새롭게 합류한다.

민관협의회에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게 된 데에는 청와대가 창조경제 관련 업무를 적극 챙기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협의회에 상시 참여하지 않는 부처 장관이나 민간 전문가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창조 경제 주무부서인 미래부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활성화와 사이버 정보 보호,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 부처 및 소속기관 직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조직 개편에서는 ICT융합 관련 부서가 신설되거나 합쳐지며, 정보보호 관련 부문에서도 일부 부서가 새롭게 꾸러졌다. 또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전파관련 시스템 운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7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 1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연합뉴스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